

##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 (1) 성부의 어린 양이 죄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 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 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 (2)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크건만  
주 친히 벗겨 주사 위로해 주시네
- (3)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 (4)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1)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 (2)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 (3) 무거운 짐 지고 애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 후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렘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6월 13일 (목) 기도 담당 : 석철원 집사

2019년 6월 12일 (수)

##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찬 송 ..... 82장 ..... 다 같 이  
기 도 ..... 최종명 집사  
성 경 봉 독 ..... 예레미야 5:22-25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 김명자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290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22-25>

22.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23.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25.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6월 12일 (수)

사랑의 하나님! 선물로 주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권속들과 더불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그 기이함을 물리치고 그 아름다움을 막았다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도 듣게 하옵소서.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 권능의 소유자가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지극한 정성과 헌신으로 지어진 새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새 예배당이 새문안에 속한 모든 권속이 영육간 평안을 공급받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시며,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개, 보수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고, 현당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간섭하셔서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짐으로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간구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제 식민지, 민족동란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조국에 경제적 부흥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대북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로 혼란과 분열과 불안의 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민이 보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